

중소도시 경로당의 복지서비스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연구

Elderly Users' Satisfaction with Servic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Senior Citizen Centers in Mid-sized and Small Cities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부교수 이인수*

Dept. of Elderly Welfare, Graduate School, Han-Seo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Lee, In-Soo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elderly users' satisfaction with welfare services and the environments of the senior citizen centers in mid-sized and small cities in Korea. Three hundred and two elderly users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atisfaction were found. The male elderly users and older user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education programs than the female and younger users. The elderly people who reside in single-family residence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educational programs and part-time job opportunities offered at the center than the elderly users who were living in apartment buildings. This could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dwellers of single housing had more freedom and more room for self-regulation in scheduling their program participation, whereas the apartment building residents had rarely experienced social exchanges with their neighbo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the environments of the centers by gender, marital status, age, level of education, religion, and housing type. The group differences were explained by the abundance of community activities that are centered around younger and female participant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more specialized educational and soci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younger users in their early 60s, that co-ed religious activities and hobby programs should be expanded, and that the home-visiting welfare staff should regularly provide the elderly users the information on programs and activities.

▲ 주요어(key words) : 경로당(Elderly Respect Home), 오락 활동(pastime activities), 복지관(welfare cente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부모를 편안하게 모시는 것은 경로효친 사상을 국민적 철학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정관리의 주요 과제임이 분명하다. 노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는 용돈을 드리고 밥을 해드리고 몸이 불편할 때 병원에 동행하는 일 외에, 긴 여가시간을 절친한 동료 노인과 유익하게 보내게 해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여성취업의 증가로 인해 며느리의 노부모 수발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협소한 아파트 생활이 확산되는 요즘(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노부모가 집안에서 동료 노인과 어울려 점심식사와 간식을 해결하거나 마음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위축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로당의 역할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02).

우리나라 경로당은 2000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 40,69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용 회원 수는 135만 명에 이른다. 즉,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다수 노인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다수 노인들은 그곳에서 오락 및 사교활동, 낮잠, 휴식, 그리고 식사와 간식을 해결

* 주저자 : 이인수 (lee1252@hanseo.ac.kr)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이로 미루어볼 때, 경로당은 집 외의 장소 중에서 노인들이 가장 오랜 시간동안 자유롭게 머물며 주거생활의 일부분을 해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에 버금가는 장소로 이용하는 생활공간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의 40% 정도가 경로당에서 주거생활의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가족화와 여성취업 증가로 인해 집에서 자녀로부터 부양과 정서적 지지를 받을 기회가 감소하면서(김혜경, 1999; 정순희, 2000), 경로당만이 집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가 무료함을 달래고 동료 노인과 여가를 보내며 가정불화가 생겼을 때는 속소처럼 머물 수 있는 안식처이기 때문이다(임춘식, 1999). 따라서 경로당의 기능을 보장하고 그곳을 찾는 노인들에게 보다 유익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가정을 대신하여 노부모의 여가를 충족시키는 큰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노인이 머무르는 공간을 노인복지법의 기준에 따라 『시설(institution)』과 『家庭(home)』으로 二分하자면 경로당은 분명 노인복지법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01). 하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인식과 욕구를 고찰해볼 때, 경로당은 제도화된 시설생활과 전통적인 주거생활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공간이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36조에 명시된 여가복지시설이기에 재정지원, 후원물품 지원, 전문인력 방문이 이루어지며, 교육프로그램, 유익한 정보교환, 그리고 소규모 공동생산 작업을 통한 소득활동이 제도적으로 권장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옷놀이나 장기간 동안의 민속놀이, 담소, 수면, 휴식, 식사, 그리고 寢食 등 전통적으로 사랑방에서 노인들이 유지하던 주거생활도 함께 유지되고 있다(조소영, 2001).

2000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건전한 오락 및 교양프로그램(예: 한글교실, 서예교실, 청소년 선도)이나 소득활동을 실천하는 경로당에 대해 사회복지사 파견과 식료품지원을 우선 고려하는 등 일과시간 위주의 규칙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북부노인종합복지관, 2000). 한편 이러한 공식적 기능 권장은 수도권 광역시 일부 경로당에만 시범적으로 적용되며, 아직도 대다수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복지기구들로부터 무료급식소 운영, 경로잔치 주관, 밀반찬 제공, 세면과 목욕시설 보강 등 전통적인 주거생활과 관련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이근홍, 1999). 또한 경로당에서의 식사, 수면, 샤워, 가정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임시 체류 등 관습화된 주거생활도 통제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근홍, 1999; 조소영, 2001). 따라서 우리나라 경로당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규격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들의 정서 속에 오랫동안 관습화된 주거생활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제도화된 시설임과 동시에 일상적인 주거공간으로 공존하는 특성은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쳐, 노인들로 하여금 국가의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동시에, 집처럼 마음대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처럼 편안한 주거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욕구를 낳는다. 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국가의 공식 시설이면서도 소규모 지역사회 노인들의 인간적 욕구를 자유롭게 해소하는 공간이라는 양면성이 오랫동안 노인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으면서, 경로당은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식적인 기관임과 동시에 집처럼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선되길 바라는 것으로서 여가프로그램, 점심식사, 자원봉사자 방문 등 복지서비스와 난방, 주방시설, 세면과 목욕시설 등 주거환경을 주로 지적하는 등(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이근홍, 1999), 복지서비스와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다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하튼 경로당은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고 오랜 시간동안 소일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그 기능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함은 가정관리의 주요 과제가 분명하다. 즉, 대다수 노년층이 경로당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활동과 관습적인 주거생활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복합적 목적의 공간으로서 오랜 시간 이용하기에, 경로당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주고 있으며, 보다 아늑한 공간이 되기 위해 어떠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습성이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연령층은 50대 후반에서 90대 이상까지 아주 다양하며, 여러 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취향과 욕구 및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노인전용 주거시설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그리고 남성과 여성 노인은 건강수준은 물론 취침이나 기상 시간, 음식에 대한 선호, 프로그램 참여욕구, 그리고 시설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 생활습관과 주거만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에(한정관·김수현, 2001), 모든 연령층 노인을 남녀 구분 없이 혼합하기보다는, 연령대와 성별로 각각 다른 층이나 다른 wing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남진, 2000; Pynoos & Regnier, 199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역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차이를 규명하고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하여 각 집단별로 차별화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평소 자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와 주거환경에 대해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각 집단별로 차별화된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

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이용노인의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 종교 유무, 주택유형, 동거하는 가족의 수,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만족도 차이에 대한 원인을 고찰하며, 이러한 고찰을 근거로 하여 각 집단별로 차등화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II. 이론적 배경

1. 경로당 기능의 양면성

우리나라 경로당은 농촌사회 사랑방모임의 자주적인 조직이 현대사회에 계승된 것으로, 지역 노인들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휴식,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로서 오랫동안 기능을 발휘해 왔다. 지금의 경로당에 해당하는 노년층 여가공간이 조선시대에는 사랑방이나 초당(草堂)으로 불렸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락유지가 노인들에게 개방하여 간식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침식을 허용하였으며, 노인들이 모여 옷놀이나 장기를 두며 오락을 즐기거나 영농정보를 교환하였다(임판호, 1995).

그러나 20세기 들어 근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부락내 존경받는 부유층 가문에서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장소로 개방하던 『사랑방』 혹은 『초당』에서의 노인들의 활동은 여가나 휴식은 물론 부락내 주요 문제에 관한 회의, 부락 청소년에 대한 예절교육, 서당기능 수행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또한 교통과 통신 수단이 개발되면서 사랑방이나 초당을 중심으로한 부락내 소규모 노인들의 모임이 다른 지역과 교류를 하며 보다 광범위한 노인조직으로서의 성격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부락내 개인 가옥의 사랑방을 중심으로 한 노인들의 소규모 여가활동이 점차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기능이 가미되면서, 1920년대 들어서는 노인의 사회적 위상을 강조한 『경로당(敬老堂)』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경로당이 노인조직 성격의 지역사회 단위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것은 1950년대 초부터이며(임판호, 1995), 이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지회의 거점으로 등록되어洞이나 里단위 부락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가 되어, 전국적으로 4만개가 넘어서고 있으며 등록된 회원이 135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이를 종합해 볼 때, 경로당은 1950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사랑방으로, 그 이후부터는 경로당으로 불리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소규모 주거공간으로 출발하여 공식적인 조직으로 전이되어 지금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여가시설로 되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산하 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겪으며 경로당은 노인단체 산하 여가시설의 공식적인 기능과 함께 오랫동안 계승된 친근한 분위기의 소규모 주거공간으로서의 비공식 기능이 양립하고 있다. 경로당의 56.8%는 정부에서 지어준 독립된 건물에 있지만 43.2%는 개인주택의 여유공간이나 상가건물내에 위치해 있고, 그중 13.4%는 무허가 조립식 건물이나 합판구조물에 있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경로당을 찾아오는 노인의 57%이상은 짜여진 스케줄 없이 장기, 바둑, 화투, 낮잠 등으로 하루 5-7시간 이상을 소일한다(임춘식, 1999; 북부노인종합복지관, 2000). 또한 경로당 운영은 사회복지사나 복지관 직원이 아니라 지역노인단체에서 정한 노인대표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기에(대한노인회중앙회, 1999) 엄격한 통제보다는 친분 있는 동료끼리의 이해와 관용의 특성이 강해지면서, 경로당내에서 음주와 가무(서울사이버대학, 2001; 임춘식, 1997) 및 취사는 물론 무기한 침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7)가 전국에서 1,010개 경로당을 표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로당의 14%는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항상 숙식하는 노인이 2-3명 이상 있으며 77.7%는 자체 취사시설을 갖추어 점심식사와 간식을 해결하고, 13.0%는 간이 목욕시설(샤워장)을 갖추고 있는 등 노인들이 원하는 만큼 오랜 시간동안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 즉, 경로당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지회에서 운영하며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공인화된 시설이긴 하지만, 수백년동안 개인주택내 여유 주거공간에서 출발하여 긴 시간동안 자유로운 휴식과 간식을 즐기며 임시체류장소로 이용하던 전통의 영향이 그대로 노년층 일상생활 속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여가 및 소득활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노인들만의 자율적이며 친근한 분위기에서 오랜 시간동안 낮잠, 식사, 음주 및 가무 등을 즐기는 주거생활 유지기능도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복지서비스 및 주거환경 욕구의 영역

경로당 기능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는 우선 노인들이 지닌 욕구와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만족도가 낮은 사항부터 점진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경로당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화된 시설임과 동시에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관습적으로 공존하면서 이용노인들로 하여금 복지서비스와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를 제기시켜왔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노년기에 찾아오는 4대 고통, 즉, 건강악화, 빈곤, 무료함, 그리고 소외감(현외성외, 2001)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서 경로당에서 실현이 가능한 서비스는 건강검진 및 진료, 공동작업을 통한 부업활동,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방문 등이 있다(조소영, 2001). 그런데 경로당 이용노인들은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 소득수준과 가족의 부양능력이 낮아 집에서보다는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려 하며(임춘식, 1999) 사교성이 적어 여러명 노인과 활력적인 여가를 즐기기도는 친한 사람 몇 명과 화투나 장기등 간단하고 무료한 오락을 장시간 즐기는 경우가 많다(임춘식, 1999). 따라서 경로당을 찾는 노인은 위에 제시된 주요 복지서비스외에 점심식사제공과 활력적인 사교활동도 복지기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원한다(이근홍, 1999). 따라서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건관련 서비스, 부업활동, 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방문, 식사제공, 사교활동 주선이나 오락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이 오랜 시간동안 머물면서 생활하는 주거공간은 자연의 압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물리적 기능은 물론 사교활동을 통해 정서안정과 삶의 만족을 유지하는 사회·심리적 기능이 동시에 작용하는 장소다(Oliver, 1985). 따라서 노년기 일과시간 대부분을 소일하며 수면, 휴식, 식사, 그리고寢食등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경로당의 주거환경은 당연히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사회·심리적 환경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주거 환경에 있어 물리적 환경이란 신체의 편안함과 쾌적함을 충족시켜주는 요인으로서, 난방, 채광, 통풍, 청결 등을 포함한다. 사회·심리적 환경은 노년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적 역할이 위축되면서 증가하는 고립과 무료함을 감소시키는 물론,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화근린시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증대시키는 요인들을 의미한다(Pynoos & Regnier, 1993). 특히 인간발달측면에서 볼 때 50세이후 고령기에 이르면 내면적 자아(inner self-identity) 성찰과 사회속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더욱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King & Elder, 1997) 자신이 항상 생활하는 주거공간이 성숙한 인간적 교류를 보장해 주고 사회속에서의 역할과 기능과 위상을 나타내 주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성향이 더욱 커진다(최성재, 1994). 그렇기에 주거환경의 영역은 사회·심리적 환경도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사회·심리적 환경에는 인간적 교류를 보장하는 다정하고 친근한 이웃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로당의 주거환경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사회·심리적 만족도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만족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비교

앞서 지적되었듯이 노인들의 연령층은 50대 후반에서 90대 이상까지 아주 다양하며 여러 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취향과 욕구 및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기에, 경로당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역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차이를 규명하고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하여 각 집단별로 차등화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로당의 복지서비스나 주거환경 만족도를 사회인구학적 변

인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에 있어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 종교, 주택형태, 함께 사는 가족수, 그리고 소득수준의 영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연령은 대부분 노년기 생활에 있어 정신신체 기능 정도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노년층을 연령기준으로 구분해 볼 때 75세 이후를 후기노년기 혹은 고령노인층이라 부르는 반면, 55세부터 74세까지는 초기노년기라 부르며 비교적 독립생활 능력이 많은 생산적 계층으로 인식하고 있다(장인협·최성재, 2000; 현외성외, 2001).

그러므로 보다 바람직한 노인 여가복지 연구를 위해서는, 자녀의 출가와 독립을 지원하고 손자녀를 돌보며 가정과 지역사회 의 지도자 역할을 역동적으로 하는 초기노년기와, 일상생활 대부분을 자식과 사회지원에 의존하는 고령노년기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고령 노인은 신체활동 능력이 감소하면서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욱 많은 점을 미루어 볼 때(최성재, 1994) 외향성이 적은 대신 주거공간의 실내 및 주변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크고 주거환경에 대해 저연령 노인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욕구가 형성될 것이다. 그렇기에 경로당 이용노인의 만족도 역시 이러한 노인여가복지 기본 원리에 따라 저연령층 노인과 고령노인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경로당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여성 노인은 우선 스스로 느끼는 건강수준이 낮고 외향적 활동성이 적기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경로당 내에서 스스로 취사를 하는 습성이 크다(임춘식, 1999). 따라서 잠시 친구를 만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휴식공간보다는 경로당을 주거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자보다 더욱 크며 공간내부의 물리환경(면적, 위생, 소음)은 물론 사회심리적 환경(사생활 보장,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등)에 대해 더욱 강한 욕구를 가질 개연성이 커진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사별노인에 비해 노부부만의 단독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 경우 경로당은 일시적 휴식공간에 불과하기에 주거공간 기능에서의 욕구는 매우 적을 것이다. 하지만 사별이나 평생 독신 등 배우자 없는 노인은 자녀나 친인척과 결합하여 의존적인 동거를 하며 동료노인을 집에 데려오기 힘들 수 있다. 자녀나 친인척과 동거하기에 식사를 거르는 가능성은 적어지지만, 고독과 무료함이 심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료노인과의 사교일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경로당의 복지서비스 중 오락이나 사교활동프로그램, 그리고 주거환경중 사회·심리적 부분인 주변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대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종교 유무, 동거하는 가족의 규모, 살고 있는 집의 조건, 소득수준 등은 노년기 삶의 방식과 정서를 지배하는 요인으로서, 노년층만이 모인 공동생활(예: 주간보호소, 노인교실, 양로원)에서 사교성과 자발성, 참여도, 만족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김귀자, 1999; 김홍란, 2000). 주택유형별 차이점을 고찰해 볼 때, 아파트는 토지개발공사나 건설회사가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아 상가, 공원, 경로

당 등 문화근린 및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러나 확실히 규격화된 폐쇄구조로 인해 이웃과의 사교활동이 매우 힘들다(최영순·박현옥, 1998; 한상훈, 1998). 그러므로 단독주택에 사는 노인과 비교해 볼 때, 아파트에 사는 노인은 동료와의 사교를 위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데 필요한 공간 욕구(예: 담소할 조화한 공간과 여가 프로그램)는 강하지만 취사시설이나 주변 문화근린 및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은 적을 것이다.

함께 사는 가족의 수 역시 경로당 이용에 있어 환경에 대한 욕구나 만족도를 차등화 시킬 개연성이 크다. 많은 수의 자녀 및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노인 단독으로 사는 경우보다 손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높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손자녀와의 공유활동 시간이 길어(이영숙·박경란, 2000) 만나고 싶은 노인들과 어울릴 기회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경로당 이용에 있어 장구나 바둑처럼 한두 사람이 오랫동안 즐기는 단순한 여가보다는 짧은 시간동안 친한 노인들과 만나 중요한 소식과 정보를 나누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욕구가 높아질 것이다. 한편, 노인단독으로 생활하는 집단에 비해 가족과 함께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기에(장윤희, 2001; 정순희, 2000)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는 적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욕구와 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복지서비스와 주거환경에 관한 만족도 역시 당연히 변인별 차이를 규명하여 이를 근거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차별화 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로당에 대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재정규모와 여가활동 내용에 관한 기초적인 것이다(강홍구,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특히 이용노인을 변인별로 차등화 한 연구는 거의 없고 모든 노인을 한 개의 집단으로 동일시하거나(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혹은 남녀만을 구분해 놓은 실정이다(유영주·김순기, 2000). 따라서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의 복지서비스와 주거환경에 관한 만족도에 대해 노인의 특성별 차이가 반영된 조사연구가 요구되며, 이러한 조사연구는 노인의 정서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할 것이다. 즉, 복지서비스와 주거환경의 다양한 측면에 관해 이용노인이 경로당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조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만족도 조사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각 집단별로 차등화 된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자원봉사단체 방문, 교육프로그램, 부업기회, 사교활동 기회, 식사·간식 제공, 그리고 취미생활 유지 등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관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성,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택유형, 동거하는 가족의 수, 가족의 소득)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경로당 내부와 주변의 소음여부, 공원·산책로, 청결·위생, 채광·통풍, 그리고 전망 등 『물리적 주거환경』 측면에 관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주변의 은행·상점, 의료기관, 여가·오락시설, 대중교통, 종교기관, 다정한 이웃,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학교 등), 관공서, 주변 질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사회·심리적 주거 환경』 측면에 관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00년 5월1일-11월30일 사이에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지역 중소도시(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제외)에 소재한 경로당 17개소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55세~87세 남녀 노인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노년학을 전공한 남녀 대학원 석박사과정생 3명과 4년제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3-4학년 남녀학생 10명등 총 14명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예비조사는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고 본 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예비조사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본조사로 실시한 『경로당 이용에 관한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 중 무응답이 거의 없는 30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대한노인회 지회로 등록되어 있으며 시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지도 하고 있는 경로당만이 포함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노인은 경로당이 소재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며 1년 이상 경로당 정회원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만을 택하였다.

특히 본 연구 분석의 주요 항목인 주택유형의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단독주택 거주자는 일반 주택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중 남자는 45.4%, 여자는 54.6%였고 유배우자는 62.3%, 무배우자는 37.7%였다. 연령범위는 최소 55세에서 최대 87세로서 평균 연령은 71.3세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64.2%, 고교재학이상이 35.8%였고, 종교가 있는 사람은 48.0%인데 비해 없는 사람은

52%였다. 또한 주택유형에 있어 응답자중 53.6%는 단독주택에 살고 46.4%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평균 동거가족 수는 2.88명이고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187.1만원이었다. 또한 조사에 이용된 경로당 17개중 지방자치단체소유 독립건물은 총 6개소로 35.3%였으며 독지가 노인대표가 사용을 허락한 개인주택 내 공간은 총 2개소로 11.8%였다. 또한 아파트단지 복합건물(관리실, 어린이 집, 상가 등과 큰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은 7개소로 41.2%이었으며 컨테이너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도 2개소나 있어 11.8%로 나타났다. 끝으로 경로당의 성별 활용형태를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마련해준 남자전용이 총 3개소로 17.6%이고 나머지 대부분인 82.4%는 남녀회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였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 및 경로당 특성(N=302)

항 목	측정값
성별(%)	
남	137(45.4)
여	165(54.6)
배우자 유무(%)	
유	188(62.3)
무	114(37.7)
연령	
평균	71.3
표준편차	6.83
범위	55-87
교육수준(%)	
중졸 이하	194(64.2)
고교 재학 이상	108(35.8)
종교(%)	
유	145(48.0)
무	157(52.0)
주택유형(%)	
단독	162(53.6)
아파트	140(46.4)
동거가족 수	
평균	2.88
표준편차	2.51
범위	1-9
가구당 월 평균 소득(만원)	
평균	187.1
표준편차	164.3
범위	40-500
경로당의 소유권 및 형태	
지방자치단체소유 독립건물	6(35.3)
개인주택 내 공간	2(11.8)
아파트단지 복합건물	7(41.2)
무허가 건물	2(11.8)
경로당의 성별 활용형태	
남자전용(전우회)	3(17.6)
여성전용	0(0.0)
남녀공동사용	14(82.4)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택유형, 동거하는 가족의 수, 그리고 가족의

소득 등), 그리고 경로당의 복지서비스와 주거환경 영역에 관한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복지서비스는 우선 노년기에 찾아오는 4대 고통, 즉, 건강악화, 빈곤, 무료함, 그리고 소외감을 완화시키는 목표아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주요 노인복지 서비스 항목(현외성의외, 2001)중 경로당기능 활성화 지원항목(북부노인종합복지관, 2000)과 일치하는 것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현외성의외(2001)의 연구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근홍(1999)과 조소영(2001), 그리고 이영세(2003)의 연구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 복지서비스 항목이 별도로 추가되었다.

주거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심리적 환경등 2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물리적 환경은 권영민·길종원·이상정(1997)의 연구에서 이용된 노후생활에 알맞은 주거공간 환경 항목과 Pynoos & Regnier(1993)의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찰된 주거시설의 물리적 요인(예: 채광, 통풍, 녹지공간 등), 그리고 이근홍(1999)과 이영세(2003)의 연구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설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 항목을 합하여 구성하였다. 그러나 주차장이나 진입로, 자연녹지 등은 평균 30명내외의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건물에 평균 45-50명 정도의 회원이 생활하는 우리나라 경로당의 열악한 환경에(임춘식, 1999;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삭제하였다. 아울러 사회·심리적 환경은 최성재(1994)의 연구와 Pynoos & Regnier(1993), 그리고 이영세(2003)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화근린시설, 그리고 성숙한 인간적 교류를 보장해 주고 사회속에서의 역할과 기성과 위상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것으로 고찰된 요인들을 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지서비스 영역 10개 항목, 그리고 주거환경중 물리적 환경 20개 항목과 사회·심리적 환경 23개 항목등 총 53개 항목이 일차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예비조사에서, 본 연구책임자와 대학원생이 대한노인회 산하 노인대표자 교육에 참석한 70-75세의 경로당 대표 남녀노인 16명을 대상으로 위에 제시된 영역의 53개 항목들을 질문하여, 그중 응답률이 90%이상인 질문만을 추려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본조사 설문항목은 위 연구문제에서 제시된 3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①경로당 복지서비스 6개 항목, ②경로당의 물리적 환경 5개 항목, 그리고 ③경로당의 사회·심리적 환경 10개 항목등 총 21개 항목으로 압축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위 예비조사에서 압축된 21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면담조사 하였다. 본조사를 하기에 앞서 우선 위 16개 경로당 대표노인의 양해를 구해 각 경로당을 사전에 1-2회 방문하여 회원들과 안면을 익히고 설문조사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는데, 사전방문도중 회원들이 조사에 매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은 제외하고 노인단체 대표자를 통해 다른 곳을 소개받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하는 분위기의 경로당만을 최종적으로 정한 뒤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경로당 방문시 대학원생 1명과 학부생 2-3명이 동행했으며 노인 1인당 설문조사는 30-40분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조사는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각자 1:1 개별면담에 의해 진행했으며, 사전에 설문항목의 내용에 대해 3시간 이상 연구책임자로부터 강의를 들은 후 면담에 응하였다. 설문조사시 위 3개 영역 21개 항목을 질문하되, 모든 항목마다 질문내용을 강의들은 내용대로 피면담자에게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설명내용은 위 문헌고찰에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진 내용을 예비조사 과정에서 노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연구자가 재정리 한 것이다(부록).

모든 항목의 만족도에 대해 5점(아주 나쁨=1~아주 좋음=5) 척도로 질문을 하였으며, Window형 SPSS/PC+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각 항목 점수는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택유형 집단별로 t-test를 하여 비교 분석하였는데, 일부 항목의 도표구성은 이영세(2003)의 연구에서 제시된 양식에 준하여 평균값과 t-score를 제시하였다.

연령, 교육수준, 주택유형은 장인협·최성재(1996),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연구에서 이용한 집단분류 기준에 따라 74세 이하(저연령층)와 75세 이상(고연령층), 중졸 이하와 고교재학 이상, 그리고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2분하였다. 또한 동거하는 가족 수 및 가족의 소득수준(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지난 일년간 총 소득)은 특별히 양분되는 기준이 없이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있는 연속함수 변수이기에, 범주화시키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수치와 만족도와의 Pearson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해석하였다.

IV. 결과고찰 및 논의

1. 복지서비스 만족도

본 연구결과, 만족도 점수 평균이 중립성향인 3.0보다 낮은 집단이 다수 나타난 항목은 교육프로그램, 부업기회, 식사·간식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책이 요망

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차이를 보면, 만족도 평균값의 성별 비교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①교육프로그램, ②식사·간식 제공, 그리고 ③취미생활 유지였다.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남녀 만족도 평균값은 각각 2.41과 2.05(p<.01)로 남성노인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식사·간식제공과 취미생활 유지에 대한 남녀 만족도 평균은 각각 2.47과 3.07(p<.01), 그리고 3.07과 3.22(p<.05)으로 두개 항목 모두 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표2). 배우자 유무별 비교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식사·간식 제공이었는데, 배우자 유무별 만족도 평균은 각각 2.46과 2.87(p<.01)로 배우자 없는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대별 비교에서 연령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교육프로그램으로, 74세 이하 저연령층과 75세 이상 고연령 집단 만족도 평균은 각각 2.25와 2.58(p<.01)로 고연령층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종교유무별 비교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취미생활 유지로 나타났는데, 종교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만족도 평균값은 각각 3.04와 3.18(p<.05)로 종교가 없는 집단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주택유형별 비교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①교육프로그램, ②부업기회, 그리고 ③식사·간식 제공으로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균값은 각각 2.42와 2.07(p<.01)이며, 부업기회에 대한 평균값은 각각 2.38과 2.15(p<.01)로 단독주택 거주 노인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식사·간식제공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값은 각각 2.44와 3.06(p<.01)으로 아파트 거주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복지서비스 영역에 있어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는 고연령층과 남자노인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연령과 성별로 차별화 되어 제공되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연령과 성에 따라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경로당은 글짓기나 서예 등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상적인 교육프로그램만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임춘식, 2001; 한국

<표 2> 복지서비스 만족도의 변인별 비교

항 목	평균값 비교											상관계수		
	성별		배우자		연령		교육		종교		주택유형		함께 사는 가족수	가족의 총소득
	남	여	유	무	74세 이하	75세 이상	중졸 이하	고교 이상	유	무	단독	아파트		
1. 봉사단체의 방문	t=-1.23		t=-0.09		t=-0.58		t=0.71		t=0.85		t=-1.21		0.01	0.01
	3.06	3.19	3.12	3.14	2.98	3.06	3.12	3.03	3.42	3.10	3.07	3.19		
2. 교육프로그램	t=3.38**		t=0.64		t=-3.59**		t=0.79		t=-0.68		t=3.45**		0.01	0.09
	2.41	2.05	2.40	2.32	2.25	2.58	2.35	2.23	2.28	2.35	2.41	2.07		
3. 부업 기회	t=1.71		t=1.81		t=-1.01		t=0.98		t=0.12		t=2.40**		0.07	-0.02
	2.35	2.18	2.37	2.19	2.32	2.40	2.33	2.19	2.35	2.34	2.38	2.15		
4. 사교활동	t=-1.58		t=-1.57		t=1.98		t=1.58		t=-0.76		t=-1.34		-0.01	0.11
	3.61	3.78	3.62	3.78	3.85	3.64	3.67	3.41	3.61	3.68	3.63	3.76		
5. 식사·간식 제공	t=-4.38**		t=-3.36**		t=1.31		t=0.11		t=0.01		t=-4.83**		-0.05	0.01
	2.47	3.07	2.46	2.87	2.61	2.46	2.57	2.56	2.56	2.55	2.44	3.06		
6. 취미생활 유지	t=-2.26*		t=-0.59		t=0.33		t=0.88		t=2.31*		t=-0.09		-0.09	0.09
	3.07	3.22	3.08	3.13	3.10	3.08	3.10	3.00	3.04	3.18	3.09	3.10		

*P<.05 **P<.01

<표 3> 물리적 환경 만족도의 변인별 비교

항 목	평균값 비교												상관계수	
	성별		배우자		연령		교육		종교		주택유형		함께 사는 가족수	가족의 총소득
	남	여	유	무	74세 이하	75세 이상	중졸 이하	고교 이상	유	무	단독	아파트		
1. 조용함	t=-3.61**		t=-1.11		t=2.58**		t=-0.78		t=0.72		t=1.11		-0.10	0.14
	2.88	3.90	2.95	3.10	3.08	2.79	2.96	3.13	3.02	2.94	3.01	2.87		
2. 공원·산책로	t=-3.05**		t=-0.98		t=2.56*		t=0.18		t=-1.41		t=-1.39		-0.12	0.46
	2.82	3.21	2.89	2.98	2.98	2.72	2.91	2.88	2.84	2.97	2.87	3.03		
3. 청결과 위생	t=-2.77**		t=0.31		t=0.81		t=-1.23		t=1.78		t=-0.09		-0.03	-0.06
	2.88	3.14	2.94	2.94	2.94	2.89	2.91	3.09	3.01	2.88	2.92	2.93		
4. 채광 및 통풍	t=-2.64**		t=-1.18		t=3.31**		t=0.41		t=2.71**		t=-2.34*		-0.12	-0.17**
	3.12	3.41	3.17	3.29	3.29	3.00	3.18	3.12	3.31	3.08	3.13	3.36		
5. 전망	t=-1.34		t=0.61		t=3.87**		t=0.46		t=-0.47		t=0.49		-0.09	0.14*
	3.03	3.17	3.08	3.02	3.17	2.87	3.08	3.00	3.05	3.08	3.08	3.03		

노인문제 연구소, 1997). 이러한 일상적 교육프로그램은 탐구욕이 높은 저연령층이나 정서생활 욕구가 높은 여성노인(김귀자, 1999; Pynoos & Regnier, 1993)의 기대에는 못 미치며, 이러한 욕구가 적은 고연령 혹은 남자노인에게만 만족스러울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재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단순성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고연령·남자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보다는 학습의욕이 강한 저연령·여성 노인의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대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택유형별로 비교해 볼 때 교육프로그램과 부업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거주 노인 집단이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일반주택과 아파트 단지 경로당의 구조적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의 운영은 독지가나 노인대표의 사유 재산이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15% 이상이며(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운영의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고 특히 노인들만의 조용한 담소나 여가가 비교적 자유로울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은 관리실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비노인층 활동공간과 같은 건물에 있어(이미정·주서령, 2002) 노인들끼리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일반 주택에 비해 아파트는 구조적 폐쇄성 때문에 이웃과의 접촉이 적고(최영순·박현옥, 1998), 노인가구 비율도 적으며 한 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도 짧아 노인들간의 친숙도가 떨어져 경로당 이용자체를 심하게 꺼려 거주노인 중 7.3%만이 이용한다(조성희·강혜경, 2002). 특히 관리실과 경로당이 있는 공용공간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빈번하여(이미정·주서령, 2002) 경로당의 지속적 이용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노인들끼리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부업활동을 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 이용노인들은 노인들끼리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부업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식사·간식의 만족도는 배우자 있는 집단보다 없는 집단이 높는데, 이것은 배우자 없는 노인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배우자 없는 노인은 집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스스로 취사를 위해 오랜 시간 힘들게 일해야 하거나 혹은 혼자 외롭게 식사하며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다(장윤희, 2001; 정순희, 2000). 그러나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면 식사준비에 대한 노력도 분담하고 동료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의 식사나 간식이 사기와 만족감을 높여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경로당은 외로움을 느끼거나 취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공동식사를 통해 정서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유형별로 비교해 볼 때 식사·간식제공의 만족도는 아파트 거주 노인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주택가 경로당의 자율성(관리직원의 통제가 없고 노인들의 자유로운 취사가 용이함)으로는 설명이 안되기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즉,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식사와 간식에 대한 후원이 잘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이곳을 찾는 노인의 주요 목적이 간식이나 식사가 아니라 정서활동이나 사교이기에 이에 대한 욕구가 적어 불만이 낮은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사 및 간식 제공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경로당 내 취미생활 유지에 대한 만족도는 여자노인과 종교 없는 노인 집단이 유의하게 높는데, 우선 성별 만족도 차이는 전문적인 취미활동이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현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취미생활 중 화투나 장기등 단순오락 외의 것은 꽃꽂이와 수예, 생활공예, 바자회등 여성중심 활동이 지배적이기에(조소영, 2001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7) 당연히 여자 노인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종교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취미생활 유지에 대해 더욱 만족도가 높은 것은, 종교가 노인의 삶의 태도와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노후의 종교활동은 건강증진 활동(예: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관심은 증대시키는 반면 음주, 흡연, 그리고 단순오락에 대해서는 냉담해지게 한다(김미숙·박민정, 2000; Krause, 1997). 따라서 종교가 있는 집단은 대부분 경로당에서 보편화된 화투, 장기, 바둑, 윗놀이 등 술내기와 흡연을 동반한 취미활동(임춘식, 1999;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7)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로당이 개인적 취향을 충족시키는 정서적 공간기능에 있어서는 종교를 가진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주는 곳이기에, 종교를 가진 노인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 물리적 환경 만족도

본 연구결과, 만족도 점수가 중립성향인 3.0보다 낮은 집단이 다수 나타난 항목은 청결과 위생으로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책이 요망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차이를 보면, 물리적 환경 만족도에 대한 평균값의 성별 비교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①조용함(소음 없음), ②공원·산책로, ③청결과 위생, 그리고 ④채광·통풍으로 나타났다. 이 4개 항목의 남녀 만족도 평균값은 각각 2.88과 3.90($p<.01$), 2.82와 3.21($p<.01$), 2.88과 3.14($p<.01$), 그리고 3.12와 3.41($p<.01$)으로 모든 항목에 있어 여성 노인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교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①조용함(소음 없음), ②공원·산책로, ③채광·통풍, 그리고 ④전망으로 나타났다. 이 4개 항목에 있어 74세 이하 저연령층과 75세 이상 고연령층의 만족도 평균값은 각각 3.08과 2.79($p<.01$), 2.98과 2.72($p<.05$), 3.29와 3.00($p<.01$), 그리고 3.17과 2.87($p<.01$)으로 모든 항목에 있어 저연령층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3).

종교유무별 비교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채광·통풍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있어 종교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만족도 평균값은 각각 3.31과 3.08($p<.01$)로 종교가 있는 집단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주택유형별 비교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채광·통풍으로서 만족도의 평균값은 각각 3.13과 3.36($p<.05$)으로 아파트 거주 노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의 소득수준은 채광·통풍($r=-0.17$, $p<.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전망($r=0.14$, $p<.05$)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로당의 전망에 대해서는 더욱 만족하는 반면 채광·통풍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 영역에 있어 조용함, 청결과 위생, 그리고 채광과 통풍은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고연령 보다는 저연령 노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성별 사용방식과 고연령 노인의 생리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남성전용 경로당이 포함된 반면 여성전용 경로당

은 없었기 때문에, 남자노인의 낮은 만족도 점수에는 남성전용 이용자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여자 노인은 음주 흡연, 가무를 꺼리고 환경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권순범 외, 1994; 김남진, 2000) 자신들이 사용하는 공간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 잘 유지되어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남자 노인의 경우 남성전용 경로당에서 습성대로 음주 및 흡연 생활을 하면서 위생청결 만족도가 떨어진 사례의 영향력이 만족도를 낮추었을 것이다. 한편, 고연령층 노인은 소음을 비롯한 주변 주거환경 요인이 열악할 경우 더욱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크므로(Pyneos & Regnier, 1993), 이러한 경향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경로당이 쾌적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여가공간 기능에 있어 남성 노인과 75세 이상의 고연령 노인에게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유형별로 비교해 볼 때 채광과 통풍의 만족도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거주 노인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아파트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면서 상가건물이나 관리실에 인접한 현대식 건물 공간에 경로당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하면서 위생측면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건축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3. 사회·심리적 환경 만족도

본 연구결과, 만족도 점수가 중립성향인 3.0보다 낮은 집단이 다수 나타난 항목은 은행이나 상점, 의료기관 이용, 여가 및 오락시설, 문화시설, 공공서이용으로서, 이러한 환경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책이 요망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차이를 보면, 사회·심리적 환경 만족도 평균값의 성별 비교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①여가·오락시설, ②종교기관, ③다정한 이웃, 그리고 ④지역사회와의 관계이다. 이 4개 항목 남녀 만족도 평균값은 각각 2.64와 2.22($p<.01$), 3.26과 3.97($p<.05$), 3.71과 3.98($p<.01$), 그리고 3.81과 4.06($p<.05$)로 여가·오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 노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모두 여성 노인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 비교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①은행·상점의 거리, ②의료기관 이용, 그리고 ③종교기관이었다. 이 3개 항목의 배우자 유무별 만족도 평균값은 각각 2.73과 3.09($p<.05$), 2.63과 2.89($p<.05$), 그리고 3.35와 3.83($p<.01$)로서 모든 항목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만족도가 있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4).

연령대별 비교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①은행·상점의 거리, ②의료기관 이용, 그리고 ③지역사회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 3개 항목에 있어 74세 이하 저연령층과 75세 이상 고연령층의 만족도 평균값은 각각 2.66과 3.16($p<.01$),

<표 4> 사회·심리적 환경 만족도의 변인별 비교

항 목	평균값 비교										상관계수			
	성별		배우자		연령		교육		종교		주택유형		함께 사는 가족수	가족의 총 소득
	남	여	유	무	74세 이하	75세 이상	중졸 이하	고교 이상	유	무	단독	아파트		
1. 은행·상점의 거리	t=-1.36		t=-2.61*		t=-4.48**		t=-2.66**		t=0.81		t=-3.07**		0.08	-0.01
	2.78	2.96	2.73	3.09	2.66	3.16	2.78	3.35	2.86	2.77	2.74	3.14		
2. 의료기관 이용	t=-0.01		t=-2.06*		t=-2.51*		t=0.42		t=-0.21		t=-4.01**		-0.03	0.07
	2.68	2.68	2.63	2.89	2.59	2.88	2.67	2.58	2.66	2.68	2.57	3.08		
3. 여가·오락 시설	t=3.82**		t=1.02		t=-1.38		t=-0.10		t=1.32		t=-0.85		0.06	0.09
	2.64	2.22	2.58	2.51	2.55	2.64	2.58	2.59	2.64	2.53	2.56	2.65		
4. 대중교통	t=-0.61		t=-0.88		t=-0.50		t=-2.08*		t=2.07*		t=-1.03		0.06	-0.04
	3.07	3.15	3.06	3.15	3.05	3.12	3.05	3.61	3.19	2.97	3.06	3.18		
5. 종교기관 이용	t=-2.61*		t=-4.52**		t=0.55		t=0.01		t=4.71**		t=-3.05**		-0.09	0.09
	3.26	3.97	3.35	3.83	3.78	3.74	3.80	3.55	3.80	3.35	3.20	3.53		
6. 다정한 이웃	t=-2.81**		t=-1.08		t=0.69		t=1.75		t=0.51		t=0.85		-0.01	0.00
	3.71	3.98	3.77	3.55	3.78	3.74	3.78	3.54	3.78	3.76	3.79	3.72		
7. 문화시설	t=0.81		t=1.25		t=0.82		t=0.58		t=-0.82		t=1.39		0.04	0.13
	2.61	2.53	2.60	2.51	2.60	2.54	2.57	2.51	2.55	2.61	2.62	2.48		
8. 관공서 이용가능성	t=-0.34		t=0.41		t=-0.71		t=-0.68		t=-0.10		t=-2.89**		-0.02	0.09
	2.76	2.79	2.77	2.73	2.76	2.81	2.78	2.86	2.76	2.78	2.73	2.96		
9. 주변질서	t=-1.41		t=0.70		t=0.61		t=1.23		t=-0.11		t=2.11**		0.02	-0.15**
	3.64	3.78	3.68	3.63	3.68	3.63	3.68	3.48	3.68	3.70	3.72	3.51		
10. 지역사회와의 관계	t=-2.51*		t=-0.28		t=-4.30**		t=1.07		t=-1.84		t=1.05		-0.02	0.10
	3.81	4.06	3.82	3.85	3.72	4.10	3.85	3.67	3.76	3.91	3.87	3.77		

*P<.05 **P<.01

2.59와 2.88(p<.05), 그리고 3.72와 4.10(p<.01)로 모든 항목에 있어 고연령층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비교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①은행·상점의 거리와 ②대중교통이었다. 이 2개 항목에 있어 중졸 이하와 고교재학 이상 집단의 만족도 평균값은 각각 2.78과 3.35(p<.01), 그리고 3.05와 3.61(p<.05)로 모든 항목에 있어 고학력 노인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종교유무별 비교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①대중교통과 ②종교기관으로서, 이 2개 항목에 있어 종교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만족도 평균값은 각각 3.19와 2.97(p<.05), 그리고 3.80과 3.35(p<.01)로 모든 항목에 있어 종교가 있는 집단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비교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①은행·상점의 거리, ②의료기관 이용, ③종교기관, ④관공서 이용 가능성, 그리고 ⑤주변 질서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별 만족도 평균값은 각각 2.74와 3.14(p<.01), 2.57과 3.08(p<.01), 3.20과 3.53(p<.01), 2.73과 2.96(p<.01), 그리고 3.72와 3.51(p<.01)로 주변 질서 외의 모든 항목에 있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거주 노인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가족의 소득수준은 주변 질서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r=-0.15),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변 질서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대부분 항목은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택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집단간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많아,

이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은행과 상점등 상업적 근린시설의 거리, 의료기관의 거리 및 이용의 편리성, 대중교통, 그리고 종교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중 부분적으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에 대한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 항목에 대해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변인의 영향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 연구를 근거로 만족도가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경로당 주변의 사회적 환경 욕구를 충족시킬 보완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경로당 주변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저연령층 보다는 고연령층에서 더욱 높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70대 후반 고연령층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살아오면서 그곳에 친숙해졌으며 가사노동 책임이 줄어 가정 외 여가 공간인 경로당에 대한 이용욕구가 크기에, 당연히 경로당 주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강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경로당 이용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이 연령과 성별로 편중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저연령 남자노인의 불만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 경로당

의 50%이상은 회원들이 조기청소와 자연보호 운동(예: 나무심기, 산불감시)등 저연령 남자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단순노동 중심의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있다(임춘식, 1997;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7). 이러한 단순노동위주의 봉사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들의 만족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저연령 남자 노인의 지역사회 관계에 대

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보완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유형별로 비교해 볼 때 은행과 상점 등 상업적 근린시설의 거리, 의료기관의 거리 및 이용의 편리성, 종교기관 및 관공서 이용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가구 거주 노인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단지가 조성되면서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 지역을 입지조건으로 하고 추가로 편의시설을 계속해서 조성하는 추세(한상훈, 1998)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주변 질서에 대한 만족도는 단독주택 거주 집단이 높은 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될만한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소득수준은 양분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유의한 상관관계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소득수준은 경로당 주변의 전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채광 및 통풍, 주변의 질서에 대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노년층의 소득수준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의 생활환경과 가족간 결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현외성 외, 2001) 노년기 정서와 욕구불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의 관리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원인이 될 개연성이 크지만,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세부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없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즉, 소득수준이 경로당 주변의 전망, 위생, 주변질서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사회·심리적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저소득층 노인을 더욱 배려한 경로당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V.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평소 자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복지서비스와 주거환경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분석하였는 바, 그 분석결과에 대한 고찰에 따라 각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부록).

1. 복지서비스

첫째, 사교활동, 취미생활, 봉사단체의 방문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집단에서 평균 3.0이상의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교육프로그램과 부업기회, 그리고 식사·간식제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단이 평균 2.5이하의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기에, 이러한 항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요망된다. 즉, 경로당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 말벗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단순 취미·오락 권장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득활동기회를 제공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등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분야에 더욱 치중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로당 활성화 정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경로당에 글짓기와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북부노인종합복지관, 2002).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정책 못지 않게 급식과 일거리 제공의 정책도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경로식당과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프로그램은 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2001), 별도의 공간과 시설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경로식당과 노인공동작업장을 당장 경로당으로 확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경로당과 복지관과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서(김범수, 2001), 소규모 간이식당과 공동작업 프로그램을 주 1-2회씩이라도 인근 복지관에서 경로당에 파견 지원하는 방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저연령, 여성, 아파트단지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점수가 평균 2.05 -2.25로 매우 낮기에, 이들에게 더욱 진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권장하는 활성화 사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특별강사를 파견하여 교양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 여성전용 경로당과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하여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고연령 노인들의 편익과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60대 초반 저연령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및 사교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기본 철학은 신체기능력이 낮아 옥외 여가활동 기회가 적은 70대 후반 고연령층 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확대시키는 것이다(조소영, 2001). 그러므로 저연령층의 만족도가 낮다는 본 연구결과만을 근거로 60대 초반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일방적인 강화는 연령계층간의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선은 바둑이나 장기, 화투놀이 등 단순한 여가위주 일과를 보내는 고연령층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단순여가의 개선을 점진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경로당에서 보다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투나 율놀이 등 재래적인 단순 오락을 즐기는 노인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경로당의 열악한 재정지원과 공간확보 여건에서는 프로그램별로 구분된 공간을 상시 마련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에,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단계적인 병행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인근 노인교실이나 재가복지 시설 교육프로그램에 경로당 이용 저연령층 노인들 중 소수를 선발하여 참여를 권장하는 방법 등이 단계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주요활동인 부업프로그램 확대(북부노인종합복지관, 2000; 조소영, 2001)를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건축물

이 견고하고 환경위생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인인구가 적고 폐쇄적인 생활로 노인들끼리의 친분이 적다. 또한 경로당 공간이 다른 사무실과 인접하여 노인만의 사생활보장이 힘들어, 경로당 부업이용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중 생활환경개선보다는, 쇼핑백이나 장난감 조립등 노인들이 쉽게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사교를 추구할 수 있는 초보적인 부업프로그램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 물리적 환경

첫째, 물리적 환경에 있어 조용함, 공원·산책로, 청결과 위생 그리고 채광 및 통풍에 있어 일관되게 남자의 만족도가 중립점수 이하로서 유의하게 낮고, 조용함, 공원·산책로, 채광 및 통풍에 대해 고령령집단 만족도 역시 유의하게 낮음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로당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있어 남성전용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명 및 환기구설치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용자중 고령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도 이러한 항목을 우선 지원하는 지원방안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경제여건상 방음시설이나 경로당 주변 도로정비를 할 수는 없으나, 반상회등 지역사회 자치기구를 통하여 경로당 주변에서 차량 정적사용을 자제하고 노약자 통행을 우선하도록 계도하는 등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로당의 남녀 구분 이용의 장단점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남자전용 경로당에 대한 위생점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경로당 위생상태에 대한 남자 노인들의 낮은 만족도는 비교적 음주와 흡연이 적은 남녀 공용이나 여성전용 경로당에서 위생관리가 잘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경로당 회원의 남녀분포나 공간규모, 그리고 남녀 공동사용과 구분사용시 정서적 영향에 대한 연구 없이 일방적인 남녀 공동이용 권장은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우리나라 경로당의 공간규모와 남녀 구성비, 그리고 남녀구분 사용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성별로 차별화 된 공간 이용을 위한 사전 계획이 선행된 후에, 점진적으로 남녀 공간구분이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로 하여금 남자 노인 전용 경로당에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위생관리를 계도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위생관리를 하도록 권장하게 하는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사회·심리적 환경

첫째, 주변질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정한 이웃, 종교, 대중

교통 등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중립적 점수 이상으로 높음에 비해 은행이나 상점, 의료기관 이용, 여가 및 오락시설, 문화시설, 관공서이용의 만족도는 낮기에 이러한 항목의 기능을 더욱 보강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경로당 주변의 편의점이나 휴게실, 의료기관 분포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시설이 취약한 지역 경로당에 대해 오락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차등화된 정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노인 경우 경로당 주변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2.22로서 매우 낮은 점에 주목하여, 전문인력을 통해 오락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있어 여성전용 경로당에 더욱 배려하는 차등화된 정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 이용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가 아파트 이용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음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과 광역시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경로당 노인의 노인시설 및 병원연계」서비스를(북부노인종합복지관, 2000; 조소영, 2001) 중소도시 경로당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일반주택가 경로당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으로 하는 차별화 된 정책이 시행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독거 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에 참여하는 소규모 의원(독거 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본부, 2002) 의료진의 경로당 방문 등, 정기적인 사업활동으로 정착된 항목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접수 일 : 2003년 1월 15일

심사 일 : 2003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3년 4월 17일

【참 고 문 헌】

- 강홍구(2000).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지, 통권 8호, 95-120.
- 권순범 외(1994). 일부지역 노인의 건강관련 실천과 신체활동 기능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20(2), 3-22.
- 권영민·김종원·이상정(1997). 노후생활에 알맞은 주거 환경조성을 위한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7(2), 103-118.
- 김귀자(1999). 노인교육의 장에서 평생교육 실현 가능성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진(2000). 노인들의 건강행위 실천정도와 관련요인 분석. 한국노년학회지, 20(2), 169-182.
- 김미숙·박민정(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0(2), 29-47.
- 김범수(2001). 경로당 기능활성화를 위한 복지관과의 연계 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지, 11호, 7-28.
- 김홍란(2001). 유료양로원 거주노인의 입소배경과 인간관계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경(1999). 울산시 노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 프로그램 - 행복한 노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울산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주최 세계노인의 해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53-73.
- 대한노인회중앙회(1999). 경로당 운영에 관한 연례 내부 보고자료.
-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본부(2002).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사업 안내자료. <http://www.silvermed.or.kr>.
- 보건복지부(2000).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단 보고서.
- _____ (2001). 2001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안내.
- 북부노인종합복지관(2000). 2000년 경로당 활성화 사업보고서.
- 북부노인종합복지관(2002). 사업평가보고서 362-368.
- 서울사이버대학(2001). 사회복지 인터넷 강의록contents. www.iscu.ac.kr
-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2000).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미발표 내부보고서 인용.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2002). 홈페이지 <http://www.senior.or.kr/seoul.php3>에 소개된 프로그램을 참고함.
- 유영주 · 김순기(2000).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지(노인복지연구), 통권 7호, 73-96.
- 이근홍(1999). 노인의 경로당 이용 만족도와 운영개선 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지(노인복지연구), 통권 5호, 95-124.
- 이미정 · 주서령(2002). 공동주택 리모델링 항목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2), 7-14.
- 이영세(2003). 주거공간 기능측면에서 본 경로당 이용노인의 인식도 및 만족도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 · 박경란(2000). 청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0(3), 1-16.
- 임춘식(1997).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제8회 노인복지 학술대회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자료집. 서울특별시 · 한국 노인문제연구소.
- 임춘식(1999).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지(노인복지연구), 통권 4호, 195-214.
- 임춘식(2001).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한국노인복지학회지(노인복지연구), 통권 11호, 29-52.
- 임판호(1995). 노인정 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윤희(2001). 경로식당노인 실태조사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협 · 최성재(199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순희(2000). 노인의 생활양식에 따른 식생활 실태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지(노인복지연구), 통권 10호, 115-140.
- 조성희 · 강혜경(2002).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생활공간 구성을 위한 거주자 사용 행태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3), 103-112.
- 조소영(2001).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한국노인복지학회지(노인복지연구), 통권 11호, 53-86.
- 최성재(1994). 고령자주택 개발의 과제. 노인주택 개발과 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연례학술대회 자료집, 61-81.
- 평화종합사회복지관(2002). 사업평가보고서.
-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 노인생활실태조사. 홍익재
-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7). 「경로당 노인교실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 정책 연구 97-04, 40-5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한상훈(1998). 공동주택단지 건설에 있어서 주거환경과 가구밀도에 관한 연구: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9(2), 33-42.
- 한정란 · 김수현(2001). 공동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년기 생리적 습관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지(노인복지연구), 통권14호, 193-196.
- 현외성 외(2001).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서울: 예문사.
- Altman, L., Lawton, M., and Wohlwill, J.(1984). *Human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Vol 17 -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Plenum Publishing Co., Inc.
- King, V. and Elder, G.(1997). The legacy of grandparenting.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848-859.
- Krause, N. (1997). Religion, Aging, and Health: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Journal of Gerontology*, 52B(6), 291-293.
- Oliver, P.(1985). *The Dwellings*. Texas : University of Texas Press.
- Pynoos, J. & Regnier, V.(1993). *Housing the aged*. London. : Elsevier Press.
- Somers, R. and Spears, N.(1992). *The Continuing Care and Retirement Communit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부록>경로당 만족도 조사 항목의 구성배경과 개선방안

경로당 기능의 양면성	전통적인 사랑방 모임과 대한노인회 조직 기능이 혼합되어 공식적인 여가복지시설과 관습적인 주거생활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함				
형성된 욕구 (참고문헌)	복지서비스 욕구 현의성의(2001), 북부노인종합복지관(2000)		주거환경 욕구 권영민·김종원·이상경(1997), Pynoos & Regnier(1993), 최성재(1994), 임춘식(1999),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7), 이근홍(1999), 조소영(2001)		
만족도 조사 항목과 설문조사시 설명된 내용					
복지서비스 영역		물리적 환경 영역		사회·심리적 환경 영역	
항목	설명내용	항목	설명내용	항목	설명내용
봉사단체 방문	자원봉사자가 찾아와 청소, 말벗, 식사를 해드리고 간호사가 혈압을 측정하고 물리치료가 간단한 치료를 해주는 일	조용함	주변에 소음이 없고 대체로 조용함	은행·상점의 거리	은행이나 슈퍼마켓이 가까운 거리에 있음
교육 프로그램	글짓기, 영어회화, 컴퓨터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	공원이나 산책로	경로당 주변에서 편하게 걸어 다닐 만한 통행로나 편하게 앉아있을 만한 공간	여가·오락 시설	노래방이나 헬스크럽등 경로당에 있다가 나와서 이용할만한 여가나 오락시설
부업기회	장난감 조립이나 소뺑백 제조등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하는 부업 기회	청결과 위생	방, 화장실, 주방 등의 깨끗함과 위생상태	종교기관 이용	경로당 주변에 편하게 다닐만한 교회나 성당이나 절
사교활동	경로당에서 노인들끼리 서로 친해져서 함께 식사도 하고 어울려 함께 오락이나 게임을 하는 등의 활동	채광 및 통풍	조명이 잘되고 창문으로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어 습하지 않음	문화시설	경로당 주변에 도서관, 박물관, 극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많음
식사·간식제공	맛있고 따뜻한 점심식사나 라면, 과자 등이 충분히 제공됨	전망과 미관	경로당에 페인트칠이나 도배가 보기 좋게 잘 되어 있고 문 앞에 보기 흉한 물건들(쓰레기장)이 없어 미관상 좋음	관공서이용	동사무소, 우체국 등이 경로당 주변에 있고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있음
취미생활유지	꽃꽂이, 수예, 그림그리기등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취미생활을 함			주변걸서	교통혼잡이 없고 불쌍스런 사람들이 없어 다니기에 두렵지 않음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주민이 경로당에 대해 불편해 하지 않고 특히 주변 노인들하고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차등화된 개선방안					
복지서비스 영역		물리적 환경 영역		사회·심리적 환경 영역	
<p>①교육프로그램과 부업기회, 식사·간식제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단이 평균 2.5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임.</p> <p>②소규모 간이식당과 공동작업 프로그램을 주 1-2회씩이라도 인근 복지관에서 경로당에 파견 지원함.</p> <p>③저연령, 여성, 아파트단지 경로당 이용노인들에게 더욱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권장하는 활성화 사업을 구상.</p> <p>④인근 노인교실이나 재가복지 시설 교육프로그램에 경로당 이용 저연령층 노인들 중 소수를 선발하여 참여를 권장하는 방법 등이 단계적으로 시도되어야 함.</p> <p>⑤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주요활동인 부업프로그램 확대를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권장해야 함.</p>		<p>①조용함, 공원·산책로, 청결과 위생 그리고 채광 및 통풍에 있어 일관되게 남자의 만족도가 중립점수 이하로서 유의하게 낮고, 조용함, 공원·산책로, 채광 및 통풍에 대해 고연령집단 만족도 역시 유의하게 낮는데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p> <p>②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있어 남성전용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명 및 환기구설치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위생점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용자중 고령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도 이러한 항목을 우선 지원하는 지원방안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함.</p> <p>③지역사회 자치기구를 통하여 경로당 주변에서 차량 경적사용을 자제하고 노약자 통행을 우선하도록 제도하는 등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p>		<p>①은행이나 상점, 의료기관 이용, 여가 및 오락시설, 문화시설, 관공서이용의 만족도는 낮기에 이러한 항목의 기능을 더욱 보강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p> <p>②전문인력을 통해 오락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있어 여성전용 경로당에 더욱 배려하는 차등화된 정책이 구상되어야 함.</p> <p>③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 이용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가 아파트 이용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는데 대한 보완책으로, 「경로당 노인의 노인시설 및 병원연계」 서비스를 중소도시 경로당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일반주택이 경로당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으로 함.</p>	